

어린이 책꽂이

▲아빠는 나를 사랑해! =미국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 'If you' 시리즈의 작가 로라 누베로프가 들려주는 자장가 같은 운율. 엄마, 아빠의 사랑을 주제로 한 그림책으로 부모의 사랑과 믿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그렸다.

▲호미를 먹은 쥐 = '연어'의 시인 안도현이 물질만능 시대를 살아가는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는 불교문화, 인도의 전설과 민담 540여편 가운데 친구, 나뭇, 곱손 등 3개의 화두로 나온 10개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마주보는 한국사 교실 = 8명의 역사학자가 들려주는 살아있는 한국사 강의. 인류의 탄생부터 한반도 최초의 문명과 국가를 일군 사람들의 역사

가 생생하게 펼쳐진다.

▲말하는 꼬꼬리와 춤추는 소나무 = 어린이들에게 위안과 용기를 주는 옛날이야기. 마음씨가 나쁜 새엄마의 계략에 의해 오빠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자 막내 여동생이 지혜를 발휘해 오빠들을 찾고 행복하게 산다는 내용이다.

▲검정 고무신(제13권) = 수업료 내기 조차 힘들던 시절, 주인공 기영이와 기철이의 이야기를 그린 '검정 고무신' 시리즈. 북쪽에서 온 어린이 기영이가 어린이 시절을 회고하는 5개의 에피소드가 실려 있다.

▲검정 고무신(제13권) = 수업료 내기 조차 힘들던 시절, 주인공 기영이와 기철이의 이야기를 그린 '검정 고무신' 시리즈. 북쪽에서 온 어린이 기영이가 어린이 시절을 회고하는 5개의 에피소드가 실려 있다.

6인이 들려주는 '배신 공화국'

21세기를 사는 지혜 - 배신 김용철 외 6인

우리가 흔히 쓰는 '염장 지른다'는 말의 어원은 '배신'에서 시작됐다. 신라 후기의 무장 염장(閔長)이 거짓 항복을 한 뒤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장보고를 살해한 것에 빗대어 나온 말이다. 첫 사람의 아련한 약속을 저버린 연인, 돈 때문에 도망간 친구, 자신의 안위를 위해 비밀을 발설해 버린 직장 동료 등을 두고 우리는 '배신자'라는 이탤표를 달아 증오하기도 한다. 배신은 대부분 믿었던 사람에게서 비롯되기 때문에 더욱 참혹한 슬픔을 안겨주곤 한다.

이 책은 시사주간지 한겨레 21이 주최한 릴레이 인터뷰 특강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방식으로 출간했던 '자존심' '거짓말' '상상력' '교양'에 이은 다섯 번째 '21세기를 사는 지혜' 시리즈이다.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의 배신, 나의 배신'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기업이라면 글로벌 스탠

드를 가지고 회사법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일할 것이라 생각했다"며 "하지만 비서실 구조조정 본부는 범죄 조직이나 다름없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기업이 국민과 직원들을 배신했다는 것이다. 또 김 변호사는 "조직의 범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니, 오히려 배신했다고 하더라"며 "법대로 가지 않는 게 배신이다"고 강조했다.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씨는 "우리 사회에는 배신을 당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배신을 한 사람은 없다"고 꼬집었다. 배신이라는 감정이 남용되고 있으며 사람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배신의 대부분은 무늬만 배신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내 행동은 동기부터 이해를 하지만 상대방의 행동은 결과만 놓고 따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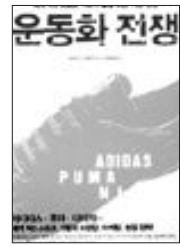


사진 왼쪽부터 김용철 변호사,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정태민 전 청와대 비서관, 정혜신 정신과 전문의, 조 국 서울대 교수, 진권권 문화평론가.

세계 빅3 스포츠 브랜드 마케팅 전략

운동화 전쟁 바버라 스미트 지음

아디다스, 푸마, 나이키. 세계 3대 스포츠 브랜드의 마케팅과 성장 전략을 담은 '운동화 전쟁'이 출간됐다. 비즈니스 칼럼리스트인 프랑스의 바버라 스미트가 쓴 '운동화 전쟁'은 세 기업의 창업 과정과 성장, 침체와 몰락, 재기의 성공 신화를 담은 책으로 세계적인 기업들의 신제품 개발 전쟁, 기업인수전 등 숨막히는 대결을 그리고 있다. 이 책은 아디다스 창업자 아디 다슬러와 푸마 창업자 루디 다슬러 형제의 전기이자, 두 회사의 기업 역사를 다룬 책이다. 또 아레나, 나이키 에어, 르코크 등 유명 상품이 어떻게 개발됐는지, 나디아 코마네치·데이비드 베컴, 사마란치 IOC 위원장 등 맹장한 스포츠 스타와 거물들이 이들 '빅 3'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영화를 통해 본 제국주의적 식민 질서

일본, 영상, 미국 나카이 나오키 지음

영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제국주의적 식민 질서를 들여다본 책이 나왔다. 미국 코넬대 아시아학과 사카이 나오키 교수가 펴낸 '일본, 영상, 미국'은 '디어헌터' 등 영화가 어떻게 미국과 일본의 '과거'를 재현성 하는 데 이용되었는지 밝힌 책이다. 눈에 띄는 글은 4부 '내전의 폭력과 국민주의-박하사탕을 해석한다'. 지난 1997년 광주비엔날레 초청으로 광주를 방문했던 저자는 '민주주의 이념과 그 실천의 분기'인 광주의 망월동을 방문한 기억을 떠올리며 광주항쟁과 현대 대한민국의 트라우마를 다룬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을 분석했다. 또 '디어헌터'는 반전영화가 아니라, 제국주의의 은밀한 전도사 역할을 한 작품이라고 주장하며, 아시아의 백인인 일본인이 패전 후 어떻게 우의으로 살아가는 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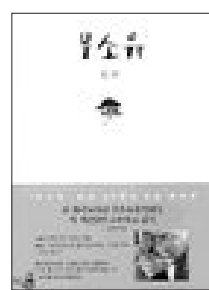


내 인생 한권의 책

법정 '무소유'

연극 '의자는 잘못 없다' 라는 공연을 끝내고 관객과 대화의 시간이 있었다. 극의 내용은 한 남자가 의자를 갖고 싶어 하면서 벌어지는 갖가지 상상속의 해프닝인데 결국 주인공은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크다. 주인공은 실업자다. 의자를 사면 가계부담이 커 마누라가 반대한다. 공짜로 받기엔 양심에 거리가 있고 심지어는 의자 때문에 이혼, 죽음까지 확대 해석된다. 결국 주인공은 의자를 포기하고 평온을 선택한다는 내용이다. 한 관객이 질문을 했다. "왜 갖고 싶는데 포기해야 되요?" "주인공이 의자를 차지하고 행복한 결말을 내리면 안되나요?" 순간 "아 그렇게 생각하는 관객도 있겠다" 싶었다. 극의 구성이 여러 상황을 제시하니까 얼마든지 결말을 다르게 낼 수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 관객의 몫이니까. 하지만 엔지 씬스쿨과 함께 한권의 책 법정스님의 '무소유'가 떠올랐다. 어릴 적 지인으로부터 선물로 받아 읽은 후, 군대 말년 내

삶의 기쁨이란?



무반에서 표지가 헤지도록 성경처럼 읽곤 하였다. 연극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이겨 낼 수 있었던 것도 아마 그 책 때문이었을 것이다. 내용은 이렇다. 난 두 분을 선물받은 스님은 온도 조절을 위해 때 마다 자리를 옮겨주고, 귀한 비료도 구하고, 관련 서적을 구해 연구하는 등 부모님에게 하면 효자소리 들을 정도로 온갖 정성을 들인다.

장마가 갠 어느날 스님은 난을 뜰에 내 놓으 체 봉선사로 출타를 하게된다. 아차 싶어 얼른 돌아와 보니 대체나 난이 시들해 있더라는 것이다. 이런 게 집착이고 집념이고 괴로움이다. 없었을 때는 무념이었던 게 있음으로 고통을 느낀다는 걸 깨달은 스님은 친구에게 난을 쥐버린다. 간디가 말했다는 "소유가 범죄다"라는 걸 되뇌이며 결국 암매입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내용이다.

결국 '의자는 잘못 없다'의 주인공 강병규도 버림으로써 얻는 게 아니었을까? 의자를 포기 함으로 가정을, 자기 자신을, 그리고 이웃을 얻게된 것이다.

책의 중간 중간에 요즘은 인간마저 소유하려 한다는 대목도 있다. 국가를 소유하려 한다는 부분도 있다.

유비쿼터스 시대에 여행하는 사상 이라고 생각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버려진 언덕"이라는 생각을 다시 곱씹어본다.

우리들은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한다. 때로는 그것들이 정말 필요 한 건지, 때로는 그걸로 인해 자신이 구속되고 속박당하고 고통을 받지는 않는지, 누군가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지, 정말 꼭 있어야 되는 건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면 삶이 좀 더 여유롭지 않을까?

한번은 휴대폰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가 후배가 없어 없어 하는 표정을 보였다.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처지면 낙오 되기에 따라가기 바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컴퓨터 앞에서 컴맹인 내가 몸부림 치고 있으니 말이다.

공연 후 질문했던 관객에게 조심스레 '무소유'란 책을 권하고 싶다.

이행원(연출가·미디어트홀 관장)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제18회시험 전국최다합격자 배출. 전국 최강 교수진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TV강의 교수진! 10월 26일 시험대비 시책특강. 9월 16일 ~ 10월 5일. 2009년도 시험대비반. 10월 6일 ~ 10월 18일. 개강 11월 3일 첫진도 시작반 (주·야) 연회원 수강신청시 수강료 20% 할인혜택(50명) 주부반·성인반·국비무료 교육 재직자반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SCU한의대.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www.scukorea.com. 문외전화 010-6834-6253.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을!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

7.9급 공무원 합격강좌. =47년간 공무원 시험에 전국 최다의 합격에 대세(大勢)를 이룬 중후한 無等を 만나세요 =. 국가직. 지방직. 강좌직종: 행 교 세 관 법 검 철 교 보 보 복 군 소 기 전. 정 행 부 세 원 활 공 정 호 전 지 부 방 술 산. 09년 공무원 시험안내. 10월 1일(주·아간반) 모집. 합격 회원 모집. 6개월 (총)회원, 1년(정)회원. 합격시까지 (장기)회원. ※수강료가 저렴하여 부담이 적습니다.

웰빙시대 최고의 유망자격증. 우리농산물 지킴이 농산물품질관리사. 현재 상담 접수중 - 주말반 -. 국가공인 5회시험. 수강료 국가 지원. - 초기자격으로 최고의 유망직종. - 농산물품질관리법 29조의7에 의해 고용시절에 농림부 자금 지원. >시 험: 1차) 11월 23일 / 2차) 2월 22일. 고용보험 가입자 수강료의 80% 환급. 49명 선착순 조기마감 유의. 자격취득자 100% 전원 취업완료!!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건너편. ☎(062)236-2468